

# 광주 자치구 첫 지역화폐 ‘부끄머니’ 발행에 오픈런

북구 광주은행 18개 지점서 1인당 50만원까지 구매  
18% 할인·1만9000곳 가맹점...지역경제 활력 기대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부끄머니’는 서민들에게 큰 혜택입니다.”  
3일 오전 8시40분 광주은행 문화동지점.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북구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사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초겨울 날씨를 보인 탓에 은행 내부로 이어지는 내부 공간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시민들은 두터운 패딩 차림이었고 손난로를 전 이들도 있었다. 일부는 “이럴 줄 알고 아침밥도 안 먹고 왔다”며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지금 사두면 한 달은 든든하다”고 말했다.  
오전 9시 정각, 기다리던 은행 문이 열

리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며 순식간에 창구 앞 대기번호가 41번까지 치솟았다. 평일인데도 은행 내부는 오전 내내 물러드는 인파에 북새통을 이뤘다.  
창구 근처에는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도까지 가득 찼고, 대기 의자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한 직원은 “문의 전화만 수십 통이다”며 “첫날이라 시스템 문의와 카드 사용법을 동시에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을 찾은 박옥씨(58·여)는 “18%를 할인해주시니 50만원권을 사면 9만원을 버는 셈이다. 오늘 30분 가량 기다린 것 같다”며 “지역에서 쓸 수 있으니 더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3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광주은행 문화동지점을 찾은 시민들이 물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이어 “발급 받은 카드로 말바우시장에 서장을 볼 생각이다. 먹고 싶은 소고기도 사고, 생선을 살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다”고 흡족해했다.  
광주은행 용봉지점과 일곡지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미 창구마다 대기인원이 30~40명에 달했다.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발걸음 돌리기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부끄머니’는 광주 북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로, 광주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100억원이 투입됐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북구 내 광주은행 18개 지점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까

지 구매할 수 있다. 18%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적용돼 50만원권을 41만원에 살 수 있다.  
부끄머니는 금액별 (3만·5만·10만·20만·50만원)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현재 1만9200여곳이다. 북구청 누리집과 전용 앱을 통해 가맹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북구는 부끄머니 발행 시작과 동시에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 공식 SNS에서는 쿼즈 이벤트와 사용 인증 이벤트를 통해 디지털은누리상품권 5000원권 500명·치킨 기프티콘 200명 등을 제공한다.  
문인 북구청장도 이날 오전 10시께 북구청 광장에 마련된 ‘부끄머니 출장버스’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카드를 발급 받았다.  
문 정장은 “부끄머니가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이런 열기를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오늘의 날씨

|     |       |     |       |
|-----|-------|-----|-------|
| 예보  | 06:56 | 날씨  | 16:29 |
| 해돋이 | 17:35 | 달지기 | 05:04 |



|     |    |       |
|-----|----|-------|
| 광주  | 구름 | 8~19  |
| 목포  | 구름 | 9~18  |
| 여수  | 맑음 | 11~19 |
| 순천  | 맑음 | 8~19  |
| 구례  | 구름 | 6~20  |
| 광주  | 맑음 | 6~19  |
| 원도  | 구름 | 9~20  |
| 흑산도 | 맑음 | 11~17 |
| 고흥  | 맑음 | 7~20  |
| 진도  | 구름 | 9~18  |

|    |        |               |
|----|--------|---------------|
| 목포 | 밀물 (고) | 00:28 / 13:03 |
|    | 썰물 (저) | 06:02 / 18:30 |
| 여수 | 밀물 (고) | 07:54 / 20:08 |
|    | 썰물 (저) | 01:31 / 13:53 |

## ‘새단장’ 호가정, 지역 명소 우뚝

광산구, 2년간 10억원 투입  
여가·문화 공간으로 재 정비

광산구가 새롭게 조성한 호가정이 지역의 대표 문화·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시민들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재 정비하기 위해 ‘호가정 경관조성 공사’를 추진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총 10억원 (국비 9억원·시비 5000만원·구비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호가정은 광산구 분덕동 1번지 일원에 자리한 광주시 지정 문화유산이다. 조선 시대인 1558년 선비 설강 유사(柳師)가 낙향 후 지은 정자로, 임진왜란 당시 소실됐다가 고종 8년에 증건돼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정신과 풍류를 상징해 온 전통적인 정자다.  
광산구는 기존 접근성이 낮고 시설이 노후화됐던 호가정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하고 매력적인 산책로로 조성했다.  
특히 수변데크와 산책길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으로 구성했으며, 전통미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새단

장했다.  
광산구는 지난 1일 호가정 경관조성 준공식과 함께 주민 화합 한마당을 진행했다.  
화합 한마당은 2024년 동곡동 주민총회 1순위로 선정된 마을의제로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동곡동 첫 주민 화합행사다. 이날 소고춤과 오카리나 등 문화 공연을 비롯해 △호가정 백일장 수상 시 작품 낭송 △호도 실전게임 ‘월척을 잡아라!’ 등을 진행했다.  
또 라탄 공예·테라리움·도자기 컵 체험 공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해 주민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동 미래발전계획 공론장’에서는 2025년 주민이 직접 선정해 추진한 ‘동곡올래 행복할지도’와 ‘동곡올래 홍보영상’ 제작 결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2026년 실행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광산구는 전통문화 유산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도시의 품격을 높일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호가정은 광산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번 사업은 호가정의 가치를 시민 곁으로 되돌리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도시의 숨은 매력을 살리고, 모두가 머물고 싶은 문화·휴식의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임정호 기자 jlh4415@gwangnam.co.kr



수험생 격려하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3일 광주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방문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서구 골목경제119 프로젝트 ‘100억 절감’  
은누리상품권 524억 유통...골목상권·민생경제 회복

광주 서구가 지역경제 주권 회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주민 생활비 100억원 절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3일 서구에 따르면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최초로 구 행정구역 전체 (18개 동)를 골목형상경로로 지정하고, 은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구청장 집무실에 ‘골목경제 상환관’을 설치하고 상인 의견을 문자로 받는 ‘골목경제119폰’ 개설, 18개 동 순회 골목 집무실 운영,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정책을 데이터-현장-소통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갖췄다.  
그 결과 주민들의 생활비가 100억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구 은누리상품권 유통액은 총 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배 (488억원) 증가했다.  
특히 디지털은누리상품권은 총정액 때마다 기본 10% 할인되고페이백 10%이벤트가 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실제 사용금액의 105억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서구 누적 절감액이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 “일제 불의에 맞선 용기, 오늘의 발걸음으로”

서구 기념탑서 염수...권오을 장관 등 100여명 참석  
시로 선언 독립운동 재현...“선배들 정의로운 기억”

“일제의 불의에 맞선 그날의 함성과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3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엄수됐다.  
이날 기념식은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96년 전 청년들의 외침이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다시 이어졌음을 되새기고자 ‘환하게 밝힐, 내일을 꾸꾸며’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학생독립운동 참여 학교의 후배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 치하에서도 ‘대한독립’이라는 빛나는 내일을 위해 투쟁했던 청년·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억·계승해 오늘날의 학생들이 환하게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진행됐다.  
행사는 여는 영상, 국민이례, 주제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학생의 날 노래 합창의 순으로 진행됐다.  
여는 영상에서는 ‘학생’과 ‘독립’이라는 글자를 동기(모티브)로 학생들의 비밀결사, 만세시위 장면을 담은 일러스트 영상과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한 주요 학생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전개 과정이 역사적 흐름에 맞춰 펼쳐졌다.

또 ‘빛나는 발걸음들 따라서’라는 주제공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후배 학생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임시정부기념관 등 현충시설을 순회, 인공지능(AI)으로 재현된 유관순, 김구, 권오설 등의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배우는 여정을 그려냈다.  
이어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전국 학교 후배 학생들이 선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애기와 자신을 꿈을 전하며 미래를 다짐하는 영상이 상영돼 그 의미를 더했다.  
권오을 장관은 “일제에 항거한 학생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선배 학생들이 독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결연히 나아갔듯이, 후배 학생들도 밝은

내일을 향해 자신의 꿈을 당당히 펼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제영 광주제일고 학생 (2년)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대해 학교에서 배웠지만 마음 깊이 와 닿지 못했다”며 “기념식에 참석해 영상을 보며 추모해보니 당시 선배들의 정의로운 목소리가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이후 기념식은 출연 가수과 학생, 참석자들이 ‘학생의 날 노래’를 합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은 2017년까지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교육청에서 개최됐다. 이후 3·1운동 및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지난 2018년부터 국가보훈처·교육부 공동주관인 정부기념행사로 격상해 진행하고 있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시작돼 이듬해 3월까지 전국의 32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3일 서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열린 제96주년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참배한 뒤 이동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